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2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6월 12일 (음력 5월 10일) 수요일

담양 주민들, 한솔페이퍼텍 이전 촉구

악취·분진·소음·폐수 고통 '심각'...대국민 호소

환경대책연대 구성 집단행동 불사 태세 귀추 주목돼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주)의 고품연료제품(SRF)사용을 허용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해 한솔페이퍼텍의 공장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양군 대전면 지역 주민들이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해 한솔페이퍼텍의 공장폐쇄와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환경대책연대는 대전면 이장단,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회초등학교 동문회 담양군 기관, 사회단체 등의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김영록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솔페이퍼텍(주)이 조속한 공장폐쇄와 이전을 할 때까지 부쟁하겠다고 버리고 있어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환경대책연대는 대전면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인해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환경오염에 노출 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에 설립된 양정제지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법정관리 중 지난 2013년에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한재골 등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악취와 소음, 대기질 등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곳이다.

담양군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한방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솔페이퍼텍(주)에서 요청한 고품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하였고, 이에 한솔페이퍼텍(주)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

의 건강과 기본적인 환경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측의 손(승수판결)을 들어 주었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도록 안내했으나 오히려 전라남도 행정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정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주)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행정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며 김영록 지사에게 주민청원과 함께 항의 방문을 요청했다.

한솔페이퍼텍 공장 인근 300m이 내에서는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야외 체육 활동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창 뛰어놀며 맑게 운동을 해야 할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정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애써 생산한 농작물이 이미지 하락으로 재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발 주민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공장이전이나 폐쇄를 서둘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세계수영대회 기간 광주는 '문화·예술·관광 축제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광주시가 대회 개막을 전후해 광주의 맛과 멋,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 세계적인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우선 D-20일을 기념해 오는 22일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2000여 명이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석을 준비한다.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불 조성을 위한 '전국 반려견 수영대회'를 조선대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대회기간 중 상시 진행되는 축제도 눈여겨 볼만 하다.

광주시는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세계청년축제를 개최하고 수

연권 등으로 나눠 순환형 시티버스 3개 노선도 운영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김치타운, 전통문화관을 경유하는 특별버스 1개 노선도 선보인다.

광주 올림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도문화 정수를 만끽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경기 후 선수들과 동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동호회, 가족단위별 체험형 관광을 위해 10개 여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권 상품, 광주·전남·전북권 상품, 전국권 상품 등 30개의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IT 광주를 알리기 위해 양림동 문화마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관광지 34곳에는 무

이달 22일 모스크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대회 기간 중 거리공연·마임·마술쇼 등 상시운영 광주·전남·북 관광상품 개발, 맛집탐방 지도 배포

영대회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게 318개 학교의 약 12만명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1일 밝혔다.

상시 문화행사로는 거리공연, 마임, 마술쇼, 체험 프로그램 등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여름시즌 행사를 확대·연장해 운영한다.

대인예술아시아장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예술의 거리 문화체험 행사도 야간까지 운영한다.

관광상품 역시 경기를 쉬는 선수들과 관광객, 마스터즈 수영동호인들을 위해 다양하게 마련했다.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6개 노선을 매주 주말에 확대 운영한다.

거리연극과 도보중심의 '광주 100년 시간 투어'는 2개 노선으로 구분했다. 양림동과 오월광장을 경유하는 '100년 버스'와 5·18 기록관,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을 경유하는 '5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등산권, 전통유적지, 예술공

로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특히 전남도에서도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선수과 가족을 위한 특별상품을 개발해 대회기간 운영한다.

대회 연계 특별상품은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당일코스 7개와 1박2일 코스 2개로 구성했다.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일원에서는 마켓스트리트를 운영한다. ICT 체험관, 정부와 각 지자체 홍보관, 푸드존, 상설 공연장등을 설치해 관광객과 대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선수촌과 남부대, 영주종합체육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는 대회기간 동안 전통음악공연,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전시·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여행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오리탕, 떡갈비, 주먹밥 등 광주의 7가지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광주의 맛 지도를 제작해 1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이희호 여사 별세' 광주·전남지역 애도 물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별세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11일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10면>

이용섭 광주지사는 이날 애도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어머니, 이 시대의 큰 별이 졌다. 격변의 현대사와 함께 했던 여사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구자였다"며 "우리나라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앞장섰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하셨던 걸음걸음이 민주주의의 길, 평화의 길이

됐다"고 회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또 한 분의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 보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신 여성 지도자로서, 또 고 김대중 대통령의 반역자 정치적 동지로서 평생 흔들림 없는 길을 걸어오신 이희호 여사의 삶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추모하며 여사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역사적 고비마다 늘 그의 곁을 지키며 더 강한 투쟁을 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던 고인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이었다"고 추모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고인은 YWCA 총무를 역임한 여성운동가이며 여성 문제 연구회 회장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애썼다"면서 "여성부 신설과 남녀 차별 금지법 제정 등 국민의 정부 시절 여성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 이희호 여사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이날 남악중앙공원 김대중중앙주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김영록전남지사를 비롯한 각 부공무원이 합동분향을 했다.

목포시도 이 여사의 분향소를 목포역 광장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도 기념관 2층에 분향소를 각각 설치하고 조문객을 받고 있다.

신안군도 D의 고향인사무소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분향소는 오는 14일 발인일까지 운영된다.

과광 연료전지

대리 영광군 태양

차장 한울 원자력

과광 가장군 바람

신안 해외 원자력

부정 북항강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수원에너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수원자력**

한수원자력주

| 한수원, 깨끗한 에너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